

# 돌아온 김태형·초보 이범호·2년차 이승엽...사령탑 열전 눈길

우승에 목마른 롯데, '청부사'로 김태형 감독 영입  
이범호 KIA 감독, 김종국 전 감독 경질로 지휘봉 잡아

2024시즌 프로야구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령탑 열전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10개 구단 사령탑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롯데 자이언츠 지휘봉을 잡으며 현장에 복귀한 김태형 감독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지난해 10월 김태형 감독과 손을 잡았다. 3년, 총액 24억원이라는 현역 감독 최고 대우로 김태형 감독과 계약했다. 2022시즌을 마치고 두산 베어스와 결별한 김태형 감독은 지난해 해설위원으로 일했으나 1년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우승에 목마른 롯데는 '우승 청부사'로 기대를 걸고 김태형 감독을 영입했다.

롯데는 KBO리그 10개 구단 중 우승에 대한 갈증이 가장 큰 구단이다. 1984년, 1992년 두 차례 한국시리즈 정상에 선 이후 31년 동안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다.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KBO리그는 8개 구단 체제에서 10개 구단 체제로 바뀌었고, 롯데는 9, 10번째 구단인 NC 다이노스(2020년), KT 위즈(2021년)가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김태형 감독은 '우승 청부사'라는 표현에 걸맞은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15년 두산 베어스 사령탑에 오른 김태형 감독은 2021년까지 7년 연속 팀을 한국시리즈 진출로 이끌었다. 2015년, 2016년, 2019년에는 두산을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려놓았다.

어깨가 무거운 김태형 감독은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앞둔 지난달 말 "부담보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새로운 팀을 맡게 됐는데 제가 이 팀에 그냥 온 것이 아니다"며 "성적을 내기 위해 온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시즌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우승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에는 우선 가을야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입기인 3년 안에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다만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토종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줘야 하는 나규안이 불륜과 가정 폭력 의혹에 휩싸여 걱정이 생겼다. 이번 시즌 잘리 반즈, 애런 윌커슨, 박세웅, 나규안이 1~4 선발을 맡을 예정이었다.

프리에이전트(FA)가 돼 한화 이글스로 떠난 주전 2루수 안치홍, 상무에 지원해 합격할 경우 6월 군에 입대하는 주전 3루수 한동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숙제다.

김태형 감독만큼 주목을 받는 '초보 사령탑'이 있다. 바로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이다. 이범호 감독은 팀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팀을 이끌게 됐다.

2024시즌이 계약기간 마지막 해였던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업체로부터 빚돈을 받아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KIA는 1월 28일 김종국 전 감독을 직무정지 조치했다가 다음 날 경질했다.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면서 새 사령탑 선임 작업을 진행한 KIA는 내부 승격을 택했다.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범호 감독과 계약기간 2년, 총액 9억원에 사인했다.

2019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퓨처스(2군) 감독, 1군 타격코치, 스카우트를 역임한 이범호 감독이 1군 사령탑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A는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로 이뤄진 토종 선발진이 버티고 있다.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와



김태형 롯데 감독



이범호 KIA 감독



이승엽 SSG 감독

제임스 네일이 KBO리그에 연착륙하면 리그 최정상급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다.

나성범, 김도영, 최형우가 있는 타선도 만만치 않다.

사령탑으로는 초보인 이범호 감독이 남부럽지 않은 전력을 갖춘 KIA에 어떤 색을 입힐지가 관심사다.

감독 선임이 공식 발표된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1군 스프링캠프를 지휘한 이범호 감독은 다소 어수선했던 팀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했다.

초보 사령탑이지만 이범호 감독은 자신감에 차 있다.

후주 캔버라에서 진행된 1차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지난달 21일 일시 귀국한 이범호 감독은 "감회가 새롭고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수들이 모인 팀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초보여도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믿고 즐겁게 해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승엽 SSG 랜더스 감독도 감독 데뷔 첫 시즌을 보낸다.

2023시즌 정규시즌 3위로 가을야구에 나서고도 준플레이오프에서 NC 다이노스에 3연패를 당해 탈락한 SSG는 김원형 전 감독을 사실상 경질하고, 새 사령탑으로 이승엽 감독을 낙점했다.

이승엽 감독은 2019~2021년 KT 위즈에서 단장을 지냈지만, 선수단 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G는 김원형 전 감독과 결별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승엽 감독은 성적과 육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시즌을 시작한다.

이승엽 감독은 선임 이후 김원형 전 감독의 경질과 23년간 프랜차이즈 스타로 뛰었던 김강민의 한화 이글스 이적 등으로 다소 어수선했던 팀 분위기를 다잡는데 힘썼다.

지난해 이따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사령탑은 이승엽 두산 감독이었다.

2022년 창단 첫 정규시즌 9위에 그친 두산은 2022년 10월 이승엽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신임 감독 최고 대우인 3년, 총액 18억원을 안겼다.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로 손꼽히며 '국민타자'로 불렸던 이승엽 감독은 2017시즌을 마치고 선수 생활을 정리한 뒤 지도자로는 일하지 않았다. 그가 사령탑으로 그라운드에 돌아오는 사실만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사령탑으로 첫 해 이승엽 감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두산은 지난해 정규시즌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리며 가을야구 무대를 밟았지만,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9-14로 패배해 일찌감치 탈락했다.

이승엽 감독은 올해 5위 이상의 성적을 바라본다. 그는 올해 1월 준승 열린 창단 기념식에서 "지난해는 항상 아쉽다. 올해는 당연히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며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슬비기자

## 전남드래곤즈, 창단 30주년 맞아 홈페이지 리뉴얼 공개

"90% 이상 스마트폰 이용...팬 서비스 증진위해 스마트폰 중심 개편"



전남드래곤즈가 팬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 개편(www.dragons.co.kr)을 완료하여 공개했다.

팀 창단 30주년을 맞은 전남은 역사관과 기념로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개인 정보 및 보안을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적합한 사용자 중심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되었다.

또한 사용자를 고려한 UI도 눈에 띈다. 홈페이지 접속 시 사용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에 경기일정과 티켓예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달의 선수, SNS 연

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남 관계자는 "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비율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신다"면서 "전남은 팬 서비스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중심으로 리뉴얼을 하게 되었다. 추후 역사관을 신설할 예정이며 전남드래곤즈의 역사와 기록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의 홈페이지 리뉴얼은 스포츠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선도하는 ㈜티스포츠(대표 윤인경)가 함께했다.

전남은 오는 9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K리그2 2024 홈 개막 경기를 치른다. 홈 개막전을 찾는 팬들을 위해 LG그램 노트북, 아이폰 15, 갤럭시Z폴딩5, 플레이스테이션5, 닌텐도스위치를 경품을 준비했다. 또한 창단 30주년 기념 태올 머플러를 선착순 1,500명에게 선물한다.

전남드래곤즈 홈 개막전은 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현장예매표는 키오프 2시간 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금빛연기' 피겨 서민규 "첫 출전한 세계주니어선수권서 1등...꿈만 같아"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피겨스케이팅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민규(16·경신고 입학 예정)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민규는 2일 대만 타이베이 아라나에서 막을 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매니지먼트사인 울렛스포츠를 통해 "첫 출전한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쇼트프로그램에서 80.58점으로 1위에 오른 서민규는 이날 벌어진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45점, 예술점수(PCS) 76.72점을 합해 150.17점을 획득, 총점 230.7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아직 실전에서 4회전 점프를 시도하지 않는 서민규는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 난도 점프를 10%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 배치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면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77.74점으로 4위였던 나카타 리오(일본)가 프리스케이팅에서 4회전 점프를 시도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실수가 나오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시상대에 오른 한국 선수는 서민규가 최초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도 한국 선수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딴 것은 2006년 '피겨여왕' 김연아(은퇴)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 남자 피겨의 개척자로 불리는 차준환(고려대)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선 적은 없다. 차준환은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2016년 7위, 2017년 5위에 올랐다.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을 뛰다가 도약에서 실수가 나와 1회전으로 처리한 서민규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가 있어 아쉽긴 했지만 뒤에 있는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완벽하게 소화해 만족할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우승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감격했다.

금메달이 확정된 후 키스 앤드 크라이존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표현했던 서민규는 "대만까지 와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 '두 달만의 골맛' 손흥민 "아시안컵 이후 첫골, 무척 기쁘다"

펠리스전서 시즌 13호골...토트넘 3-1 역전승 쾌기

두 달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골 맛을 본 토트넘 홉스퍼 '캡틴' 손흥민이 아시안컵 이후 첫 골에 의미를 뒀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27라운드 홈경기 선발로 나와 후반 43분 3-1을 만드는 쐐기골로 토트넘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아시안컵에서 돌아와 다시 골을 넣어 무척 기쁘다.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더 좋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올해 1월 1일 본머스와의 20라운드 이후 두 달 만에 소속팀 토트넘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대표팀 내분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손흥민은 최근 대표팀 후배 이강인(파리생제르맹)과 같이도 봉합된 뒤 골맛까지 보며 경기력을 빠르게 회복했다.

팀의 세 번째 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승점 3점을 따는 게 가장 중요했다.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며 "0-1로 밀릴 때도 좋은 경기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려 한 전략이 후반전 초반까지 잘 들어맞았다. 그래도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며 "한 번의 완벽한 기회가 필요했는데, 그 기회를 티모 베르너가 살려 동점골로 넣었다"고 덧붙였다.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도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준 손흥민은 "침착해 보이지만, 긴장한다"며 "감사한 칭찬"이라고 웃었다. 이어 "거의 50m를 달려서 좀 힘들었지만, 상대 앞에서 볼터치를 잘해서 저를 건드릴 수 없게 하려고 했다"며 "골대 앞,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